



2023년 5호
2023.10.26.

금속노조 교육지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행인 윤장혁 위원장 | 편집 교육실 ☎ (02)2670-9506 | 홈페이지 www.kmwu.kr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 ... 대통령이 문제다

11월 11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임시다



민주노총이 11월 11일(토) 오후 2시 서울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 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악과 사회공공성 후퇴, 민생의제 외면, 대통령 거부권 남용, 대일 굴욕외교 등 국정 파행과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노동유연화, 공안 몰이, 노조 회계 공시, 단협 시정명령,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 노조파괴 등으로 민주노총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5만 조합원 총궐기를 성사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한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에 발맞춰 조합원 2만 명 참가를 조직한다. 10월 20일 시작한 ‘제주에서 서울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자민중 전국 대행진’ 에 지역별로 적극 결합하기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하였다.

왜 매년 11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를 열까?

우리는 왜 매년 11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외치며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것일까. 전태일, 그는 누구이길래 매년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한날 한곳에 모여 그의 정신을 기리는 것인가.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하였다. 당시 한국 사회 노동자 착취는 극에 달했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개발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우겼다.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등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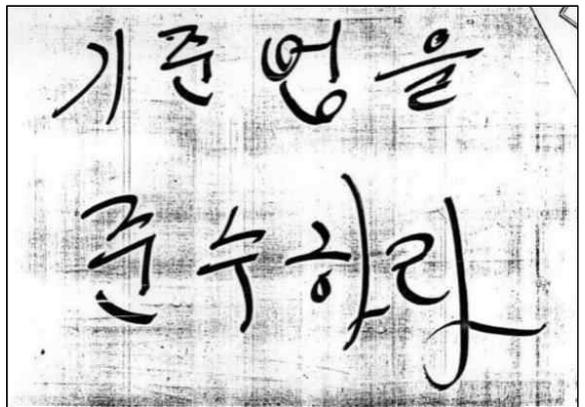
가혹한 착취가 노동자의 저항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 군사 독재정권은 노동조합을 정권의 통제하에 두었다. 국가가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악법을 만들었고,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와 복수노조 금지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다.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유명무실했다.

전태일이 재단사로 일했던 서울 평화시장의 노동환경은 열악 그 자체였다. 흔히 여공, 시다(보조)로 불리었던 10대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14~16시간을 일하고 일급 50원을 받았다. 작업장에는 종일 허연 먼지가 푹푹 날렸지만, 환풍기 1대 없었다.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데다 뒤덮인 먼지를 마시며 오랜 시간 일하다 보니 결핵 환자들이 나날이 늘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전태일은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옥편을 뒤져 한자투성이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현실을 알리기 위해 평화시장 노동자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 동료들을 모아 바보회, 삼동회 같은 조직을 만들었다. 그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사용자들에 맞서 싸웠다.

전태일과 동료들은 애썼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노동청에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전태일은 계속 저항했지만, 한계에 부딪힌다.

전태일은 이름뿐인 근로기준법을 화형에 처하기로 결단을 내린다. 근로기준법 책과 자기 몸에 불을 댕겼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의 분신 이후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각층이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청계피복노조를 시작으로 원풍모방, 동일방직, YH 무역 등에서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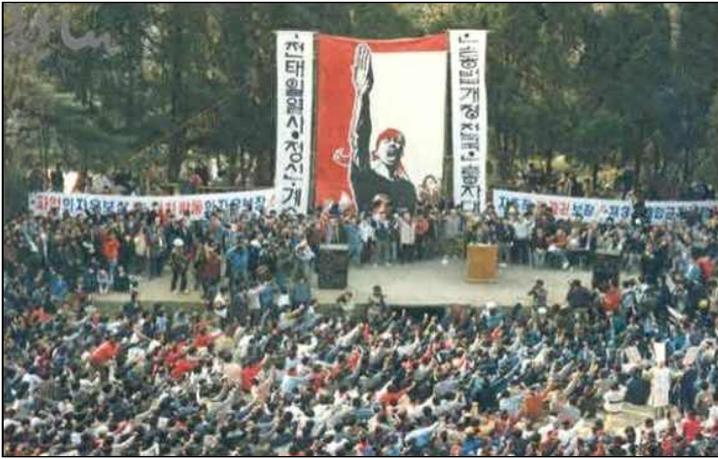
열사의 투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다. 전태일은 60~70년대 한국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서 자행된 노동자 착취구조에 맞섰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학습하였고, 동료들을 설득하고 조직하였다.

전태일은 자신만의 이익을 피하지 않았다. 열사의 활동 과정을 보면 매 순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어린 여공들을 먼저 생각하고 뛰어다녔다. 그것이 바로 연대 정신이고, 인간애다.

그리고 1988년 11월 13일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 를 열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의 탄압과 어용노조에 맞서 투쟁하던 노동자들이 ▲전국노동자대회 복원 ▲민주노조 전국 조직 건설 추진 ▲제3자 개입금지 등 노동악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이날 대회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날은 전태일 열사 기일이었다. 전태일 열사 정신의 부활을 위해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대회 내내 “계승하자 열사 정신! 철폐하자 노동악법”, “노동운동 탄압하는 군 부독재 타도하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 해방 쟁취하자” 를 외쳤다.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며 노동자 손으로 직접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의 결의들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와 민주노총으로, 또 매년 11월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로 이어지고 있다.

120만 전태일의 반격! 정권 퇴진 광장을 열자

전태일은 50년 전 이야기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매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노동문제와 노동 현실을 널리 알리고 그 해결을 결의해왔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어김없이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올해는 정권 퇴진이다. 조합원들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선포하고 ▲모든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 ▲공공요금 인상 반대, 민영화 저지 등 공공성 강화 투쟁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규탄 및 저지 투쟁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항의 투쟁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2023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더 강한 노동탄압, 공안 물이를 예고한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면 11월 11일 서울로 모인다. 많이 모이고 크게 외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리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참고 영상

- 민주노총 2023 전국노동자대회 홍보영상 <다시, 광장으로> (2023.10.25., 4분47초)

<https://www.youtube.com/watch?v=piqkw1a6FFg>

